

이혜리(11)

1. 외교부 유라시아1과 외무행정관 이혜리, 성균관대학교 2학년 1학기 러시아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다른 학우들보다 늦은 감이 있었지만 원어 연극을 하고, 교환학생을 다녀오며 러시아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배운 러시아어를 업으로 삼고 싶어 관련 있는 각종 시험들을 준비했습니다. 준비의 시작점은 국가의 대표로서 러시아와 소통하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국정원 시험도 준비했고 최종면접까지 합격한 바 있습니다. 결국 처음 목표로 삼았던 외교부에 들어왔고, 첫 과로 유라시아1과에 발령받았습니다. 러시아어를 전공하여 러시아어를 일에 활용하는 건 생각보다 드문 일입니다. 러시아어를 활용하여 공직에 나아가고 싶은 후배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외교부 내 러시아 관련 업무

3. 러시아어를 활용한 공무원 시험 준비(외교부, 국정원 등),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의 멘탈 관리 등